

□ 주요내용

○ (추진배경)

- 도내 패류생산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저감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
- '23년 미 FDA 지정해역 방한점검 사전 대비로 굴 수출중단사태 방지

○ (사업개요)

- 노로바이러스 저감 대책 추진(도내 전해역, 오염원 차단 등 위생관리)
-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('23년 미 FDA 방한점검 사전 대비)

□ 추진실적

○ 노로바이러스 저감 대책 수립(2회) 및 관계기관 협의회* 개최(4회)

* 도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해양경찰, 수산물품질관리원, 시·군, 수협 등

○ 개인하수처리시설(가정집 정화조 등) 법정 청소의무 이행 강화(2월~)

- (계획) 연안 7개시군은 5월까지, 기타 시군은 10월까지 청소 실시
- (실적, 5.20.) 연안 7개 시군 83%, 기타 시·군 61% 청소 완료

* 수질관리과와 협력하여 주간단위 실적 관리, 도지사 권한대행 매주 보고

○ 오염원 저감 시설·장비 확충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 확보(5억원)

- 바다공중화장실 3개소 확충(18→21개소), 항포구 화장실 5개소 확충(68→73개소),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1,000개 추가보급(9,117→10,117개)

○ 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(해수부, 3월~)

- 소형어선 간이화장실 설치 의무화(현행 8톤이상 → 4톤이상으로 강화)
- 어업인·낙시어업자 등 각종 의무교육 시 해역위생관련 교과목 편성

* 어업인 안전조업교육(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), 낙시전문교육(한국어촌어항공단)등

○ '23년 바다공중화장실 20개소 확충 국비지원 건의(3월~)

- 해수부 국비지원 수용(총사업비 16억원 중 국비 11억원)

- 어업인 및 해역이용자 대상 해역위생관리 홍보 추진(2월~)
 - 해역 위생관리 홍보물(리플렛·스티커·포스터 45천부) 제작 배부
- 지정해역 주변 육해상 분뇨차단 시설 및 가정집 정화조 분뇨 수거(1월~)
 - 가두리양식장(95개소), 바다공중화장실(17개소), 해상납시터(11개소) 31톤
 - 가정집정화조(1,400개소), 항포구화장실(50개소) 2,379톤
-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미 FDA 점검 대비 세부시행 계획 수립(1월)
 - 해역관리 T/F팀(3개반 38명) 구성,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획수립 등
- '23년 미 FDA 지정해역 방한점검 대비 유관기관* 합동 현장점검(3회)
 -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실태 점검, 해역관리 문제점 도출 및 대책 회의 등
 - * 도, 해수부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, 시·군, 해경, 수협 등 참여
- 미FDA 점검대상 해역(지정해역1,2호) 주변 공공하수처리장 조기확충 추진(2월~)
 - (계획) '23년까지 17개소 조기준공(24→41개소) 및 2개소 추가설치
 - * 조기준공 및 추가수요 조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조사(2월)
 - 국비예산 조기확보 등을 위한 유관기관* 합동 환경부 방문 건의(2월)
 - * 도 수질관리과·해양항만과,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참여

□ 주요성과

- 효율적인 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유관기관·부서 협력체계 구축
 - 육해상 오염원인 조사, 오염원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강화
 - * 참여: (기관) 도, 시·군, 해수부, 수과원, 수품원, 해경, 수협 등, (부서) 해양항만, 수질관리
- 개인하수처리시설 법정 청소 이행률 제고(연안 시군 53%→83%)로 오염원 저감
- 해상오염 저감을 위한 바다공중화장실 20개소 확충 국비 확보
 - '23년 총사업비 16억원 중 국비 11억원 지원
-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굴 수출 유지 기반마련
 - * 도내 굴 수출량은 전국 수출량의 90% 차지, 대미 수출은 100% 점유